

시놉시스

성남(23,남자)은 아버지와 연이 있는 문인협회 부이사장 영근(55,남자)에게 집필 제의를 받는다.

신인작가 공모전에서 수상 유력한 작품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성남이 군복무시절 병영문학상에 출품한 소설을 영근이 심사했기 때문에 원고를 갖고 있다. 영근은 성남의 원고를 일부 수정하면 작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수정을 권유한다. 영근은 달콤하지만 친절하지 않은 말로 성남을 설득한다.

영근의 도움으로 성남은 비슷한 또래의 작가(23,여자)와 글을 다듬는다. 작가는 성남의 자전적인 글을 읽고 모욕감을 느끼는 말을 한다.

작가와 글을 수정할수록 성남은 모욕과 불편함을 겪는다. 성남은 자신의 자리가 영근 아들이 사고를 쳐 생긴 공석임을 알게 된다. 다른 경쟁자를 입상 시킬 바에 성남을 입상시키려는 영근의 속셈을 안다. 고민하던 성남은 영근이 갖고 있던 '원손잡이'라는 글을 수정해 영근 책상에 올려놓는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한 성남은 아버지의 샤워 소리와 식탁의 고기반찬을 보고 다시 문인협회 건물로 향한다. 아무도 없는 영근의 집무실을 뒤지던 성남은 아버지 이름이 적힌 '원손잡이'라는 원고를 발견한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썼던 글이다. 자신에 이어 아버지까지 이용당함을 알아채는 성남.

늦은 저녁.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성남은 막노동자 아버지의 작업화, 작업복, 빈 소주병을 본다. 이것들 너머로 번데기처럼 이불을 뽐뽐만 채 등 돌려 잠자는 아버지를 발견한 성남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다. 얼마 뒤 신발장 등이 꺼지고 성남과 눈동자는 어둠에 묻힌다.

인물

허복민(59,남자)

- 성남의 아버지.
- 환갑을 앞두고 있다.
- 의무교육을 간신히 졸업했다. 보이지 않는 지식, 배움은 사치였고 당장 입에 풀칠하기 바빴다. 때문에 바로 사회에 뛰어들었다. 한때 샷시 일을 했고 지금은 막노동을 한다.
- 샷시 시절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인 영근의 아들 방 창문을 수리했는데 그 집에서 폭우에 살아남은 유일한 창문이다. 때문에 영근과 간간히 연락하는 모양이다. 복민은 영근에게 굶신거릴뿐더러 먼저 연락하는 일이 없다. 영근에게 존칭을 쓰지만 영근은 복민에게 반말을 쓴다.
-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껍질만 남아있다. 죽음이 오히려 구원일 것 같은 생애를 살고 있다.
- 한때 멋진 아버지를 꿈꿨지만 현실은 복민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 병원보다 은행가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 큰마음을 먹고 에어컨을 마련했지만 트는 것에 더 큰 결심이 필요한 사람.
- 이십대 시절 잠깐이지만 문학도를 꿈꾼 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 간간히 영근과 연락하고 지냈다. 젊은 시절 썼던 글을 영근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 아들 성남이 휴가 때문이지만 글을 쓴다고 했을 때 내심 기쁨을 느꼈다.
- 이십대 시절 이후로 책 읽을 여유가 되지 않아 한 권도 읽지 못했다.

김영근(55,남자)

- 한국문인협회 부회장이자 소설 쓰는 작가이다.
- 권위적이며 위선적이다. 이는 영근의 말과 태도에 드러난다.
- 작가 지망생들의 글을 표절한다. 복민이 과거에 썼던 글에 영향을 받은 소설을 쓴 적이 있으며 원고 역시 보관해두고 있다. 젊은이들의 기대와 환상을 갉아먹는 인물.
-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다.
- 한국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전 심사위원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현재 부이사장이라는 직급을 이용해 좋은 글들을 떨어뜨리고 자신의 글에 반영한다.
- 한때 병영문학상 심사를 본 적이 있는데 성남의 글을 심사한 적이 있다. 복민은 이때 영근에게 연락을 했다.
- 신인작가 공모전에서 아들을 수상시키려 했지만 얼마 전 아들이 음주운전 및 폭행 사고를 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됐다. 아들 경쟁자들의 지원작을 수상시키기 꺼려한다. 때문에 한때 작가를 꿈꾼 복민의 아들이자 군복무시절 글을 써본 성남을 이용하기로 한다.